

# 국어·수학 '선택과목제' 주목... 정시확대 대비 전략 세워야

## 학 바뀔 올해 수능 준비 어떻게?

2021학년도 대입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이제 예비 고3들의 마음은 더욱 바빠졌다. 특히 올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수학에서 문·이과 구분이 사라지고,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생기는 등 바뀐 점이 많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입시전문가들은 올해 수능을 치르는 예비 고3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실시하는 선택과목제와 정시 확대를 대비해 겨울방학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18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11월 18일로 예정된 수

선택과목 본인에 맞게 일찍 골라야 시간 낭비 피하고 효율적 학습  
정시 노린다면 상반기에 수시 논술 치중보다 수능 점수 올리기 집중

능에서 처음 도입되는 국어·수학영역 '공통+선택 과목' 방식을 주목해야 한다. 기존 탐구영역에 더해 주요 영역에서도 선택과목이 생기는 것이다.

국어영역은 독서와 문학이 공통과목이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수학은 문·이과 구분을 폐지했다. 가형·나형 구분 없이 수학 I과 수학 II를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통계, 미적분, 기하 등 3개 과목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자연계의 경우 대다수 상위권 대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자연계 학생 중 1등급대 16%가 확률과통계를 선택했을 정도로 문·이과 통합 수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과학탐구영역에서도 문·이과 구분이 사라진다. 사회탐구 9과목과 과학탐구 8과목 등 총 17과목에서 원하는 과목 2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른다.

사교육을 잡겠다는 의도로 2005학년도부터 도입됐던 EBS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로 낮아진

다.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대신 EBS 문제집으로 수업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 과목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선택과목을 조기에 고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능 선택과목을 일찍 고르는 것도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된다. 본인에게 맞는 과목을 조기에 선택하면 해당 과목의 학습량이 늘고, 다른 미진한 과목 보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선택과목 간 유불리는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현재로서는 수험생 본인이 잘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어떤 선택과목을 고를지 학년이 서지 않았다면 공통과목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여러 과목을 계획 없이 공부할 경우엔 뒤따르는 시간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지난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 서울 주요 대학 중에는 40% 이상을 정시로 선발하는 곳도 적지 않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정시를 노린다면 상반기에는 수능 점수를 최고로 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무리하게 수시논술에 치중하는 학습 방법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눈 내린 조선대 ... 동화 속 풍경

18일 오후 조선대학교가 이날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마치 동화 속 겨울 왕국의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 조선대, 학내 소상공인 매장 임대료 50% 감면

지난해 9월~12월 4개월간  
지급된 임대료는 환급

국내 유일의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가 지난해 6월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내 소상공인들의 근심을 덜어주고자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비대면 강의 운영으로 등교하는 학생 수가 적어 학내 소상공인 임대 매장의 수입이 급감했다. 조선대학교는 임

대매장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최근 개최된 기획위원회에서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광주은행 등 5개 매장을 제외한 입점 매장이며, 지난해 9월~12월(4개월·2020년 2학기 분) 임대료의 50%가 감면된다. 이미 지급된 임대료는 감면비율만큼 환급하고, 지급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조선대는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임대 매장의 4개월(2020년 1학기 분) 임대료를 50% 감면한 바 있다. 이에 학내 입점 매장 소상공인들은 "대학의

재정이 어려우면서도 다른 곳보다 높은 비율로 임대료를 감면해 준 조선대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은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박상순 총무관리처장은 "조선대가 7만 2000여 시민들의 모교로 탄생한 국내 유일의 민립대학인 만큼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모두가 뜻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도 민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는 호텔관광경영학부 학생들이 최근 열린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18일 밝혔다.

호텔관광경영학부박수하(4년)·김민지(4년)·차슬비(4년)·서건우(2년) 학생은 '스트레스 DOWN! 갑골 스포츠 이벤트' 작품으로 '반짝반짝! 내가 만드는 국제이벤트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지역 특화 국제이벤트 부문에서 1등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스트레스 DOWN! 갑골 스포츠 이벤트'는 제주의 특산물인 갑골을 활용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 콘텐츠를 제안한 것이다.

박수하 학생팀은 제주 갑골박람회에서 갑골서바이벌과 앵그리갑골, 흡러탄저민, 스윙망 등 4가지 종목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 갑골이 심한 태풍과 바람으로 상품성 있는 갑골의 재배가 어렵고 산도가 높아 음식물 쓰레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뉴스 등을 참고, 이번 이벤트가 환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동강대, 2월3일까지 19개 학과 편입생 선발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편입생을 선발한다. 동강대는 오는 2월3일까지 공학·자연과학·인문사회·예체능 등 4개 계열 19개 학과에서 2021학년도 주야간 편입생을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편입생은 2학년으로 공학계열의 경우 건축토목조경학부 건축전공(주야간)과 토목조경전공(주야간), 전기과, 기계자동화과, 소방안전과(주야간), 드론과에서 편입생을 뽑는다. 자연과학계열은 3년제인 보건행정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 작업치료과 등 6개

학과를 비롯해 호텔조리경영학부에서 주간 편입생을 모집한다. 예체능계열은 뷰티미용과와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 인문사회계열은 경찰경호과, 군사학부, 세무회계과, 지적과, 호텔관광과, 유아교육과(3년제) 등이다. 군사학부는 면접을 실시하며 나머지18개 학과는 전적 대학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는 2월15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동강대 홈페이지나 입학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청소년 언어' 도움자료 정리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청소년 언어' 도움 자료를 정리해 지역 초·중·고·특수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도움 자료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와 줄임말로 생활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제작했다.

도움 자료에는 '갑분싸(갑자기 분위기 싸해짐)', '베프(베스트 프렌드)'와 같이 비교적 자주 들어본 표현은 물론 '누몰보(누구 물어보신 분)', '사바사(사람 by 사람, 사람마다 다름)'처럼 생소

한 표현 등 347개의 신조어와 줄임말이 정리됐다.

이번 자료는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민주시민교육지원과 공개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주정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청소년 언어는 수시로 새로 생기고,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있어 '청소년 언어' 도움 자료는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생활교육과 관련해 학교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이진 장편소설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합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저자 이진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 집 :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 '하늘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